

간호행정학회지 게재 질적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창간호~2016년)

박광옥¹ · 유소영² · 이은희³ · 황지인⁴ · 김미영⁵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¹, 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², 한림대학교 간호학부³,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⁵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irst publication to the end of 2016)

Park, Kwang-Ok¹ · Yu, Soyoung² · Lee, Eunhee³ · Hwang, Jee-In⁴ · Kim, Miyoung⁵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 National Resourc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CHA University

³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⁴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⁵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JKANA). **Methods:** Selected studies included 38 qualitative studies in which an interview was used and which were published in JKANA from 1995 to 2016 (22 years).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a reporting guideline for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was employed. **Results:** Items that were included in less than half of the selected studies were as follows: interviewers' credentials, occupation, gender, and relationship established with participants in the 1st domain; non-participants, presence of non-participants, and transcripts returned in the 2nd domain; participant checking in the 3rd domain.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future challenges face JKANA qualitative researchers. First, th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ensured to explain complex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Second, a varie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nursing fields. Third, research procedures should be described more precisely to increase transparency of research results. Fourth,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on the researcher but also how subjective opinions of the researcher reflected in the research proces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Publishing

주요어: 질적 연구, 간호, 출판

Corresponding author: Kim, Miyoung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6694, Fax: +82-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간호행정학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Research Fund in 2016.

Received: Aug 14, 2017 | **Revised:** Sep 11, 2017 | **Accepted:** Sep 15,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행정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는 1995년 3월, 1권 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17년 6월까지 총 23권, 900여편의 논문을 발행해 왔다. 간호행정학회지는 2013년 이후 연 5회 발간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국내에서 질적 우수성을 지닌 학술지로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행정학회지의 게재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4차례(1995~2000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 이루어졌고[1-4], 주요어를 분석한 연구[5], 게재불가논문을 분석한 연구[6]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간호행정학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를 제시하고, 새로운 영역의 연구 활동이나 후속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학문적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의 대부분이 양적 연구이고 연구의 분석틀 또한 양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 설계이어서 비록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질적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제외되거나 질적 연구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이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연구 패러다임만으로는 복잡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7].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접근으로 모색된 연구방법으로 인간의 현상 이면의 심층적인 구조와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유용하다[8]. 그러나 질적 연구의 문제점이나 질 관리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적 통찰, 발견,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므로 Strauss와 Corbin [9]은 질적 연구 평가에 적합한 기준이 명확히 서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질적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Equator network library에 제시되어 있는 Tong 등[10]의 COREQ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와 O'Brien 등[11]의 SROR (Standards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를 살펴보았다. 먼저 COREQ는 2007년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으로 Tong과 동료들은 질적 연구도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 보고의 질을 높이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고 이에 기존의 22개 체크리스트 중 76문항을 검토한 후 3가지 영역(연구팀과 반성, 연구설계, 자료분석과 보고)의 32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SROR는 2014년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으로 O'Brien 등은 질적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두드러진 가치를 나타내지만 질적 연구의 주요 요소에 대한 보고가 아직 불완전하여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5개 영역(주제와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방법, 결과, 논의)의 21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로 COREQ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COREQ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에도 적용가능하고, 연구의 질을 사정하기 위한 적절한 틀로 이미 국내·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어[12-15]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체크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을 활용하지 않은 질적 연구는 제외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5년 전부터 해당 분야별로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91편[16],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20편[14],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정신간호학 분야의 질적 연구 50편[17],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24편[15]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 분야 질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질적 연구의 양적 증가와 다양한 연구방법론,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엄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호행정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도 선행연구에서의 분야별 특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행정학회지에 질적 연구가 1995년에 처음 소개된 이래 간호행정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이 어떠하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질적 연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질적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1995년 1권 1호에서 2016년 22권 5호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분석한다.

- 질적 연구 논문의 보고내용 중 '연구팀과 반성' 영역을 분

석한다.

- 질적 연구 논문의 보고내용 중 ‘연구설계’ 영역을 분석한다.
- 질적 연구 논문의 보고내용 중 ‘자료분석과 결과’ 영역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중 심층면담이나 초점집단면담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 38편을 Tong 등[10]의 COREQ의 분석기준을 통해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 논문은 1995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22권의 간호행정학회지를 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anad.or.kr>)에서 제공하는 학회지 원본제공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총 87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어떤 연구를 질적 연구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Creswell [18]의 질적 연구 전통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분류한 결과, 총 44편(5.0%)에 해당하였다. 또한 COREQ 평가 기준은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담이나 초점집단면담을 적용한 논문에 적합한 기준이므로 본 연구에서 면담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수집방법으로 개방적 설문지(내용분석)나 역사적인 자료(역사연구), 참여관찰(문화기술지) 방법만을 이용한 연구 논문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8편(4.3%)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3. 분석틀

Tong 등[10]은 기존의 질적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체크리스트를 전반적으로 탐색한 후 최종적으로 3가지 영역, 32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연구팀과 연구자의 반성’ 영역은 개별적인 특성(면담자와 진행자, 자격, 직업, 젠더(gender), 경험과 훈련)과 참여자와의 관계(관계 수립, 참여자의 면담자에 대한 지식정도, 면담자의 특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연구설계’ 영역은 이론적인 틀(방법론적 틀과 이론), 참여자 선정(표집, 접근방법, 표본크기, 탈락자를 포함한 연구참여자 선정), 환경(자료수집의 환경, 불참자의 존재, 표본

에 대한 기술), 자료수집(면담 지침, 반복적 면담, 청각 또는 시각적 기록, 현장노트, 자료수집기간, 자료 포화, 전사물에 대한 참여자 확인)의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자료분석과 연구 보고’ 영역은 자료분석(자료코딩 참여자 수, 코딩체계 기술, 주제도출, 소프트웨어, 결과에 대한 참여자 확인), 연구 보고(인용문 제공, 자료와 결과의 일관성, 핵심주제의 명확성, 하위주제의 명확성)의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도 7~8월에 시행되었으며,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연구 중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담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창간호인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

연구자들은 분석을 위한 틀로서 Tong 등[10]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합의한 후 분석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과정을 거쳤다. 가령 질적 연구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분석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분석에 대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이 전체 38편의 논문을 분석틀에 따라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연도별 편수, 연구주제의 대상,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도별 편수를 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는 38편(4.3%)으로 한 해에 평균 편수는 1.73편이었다. 연도별 편수의 범위는 1편에서 6편이었지만 연도별 한편도 게재되지 않은 6개의 연도(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도 있었다. 연도별 편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구주제의 대상은 38편 중 32편(84.2%)이 간호사를 대상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N=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Year of publication	1995	2 (5.3)	1.73±0.68	1	6
	1996	1 (2.6)			
	2001	1 (2.6)			
	2002	2 (5.3)			
	2003	2 (5.3)			
	2004	1 (2.6)			
	2005	1 (2.6)			
	2007	3 (7.9)			
	2008	2 (5.3)			
	2009	4 (10.5)			
	2011	1 (2.6)			
	2012	3 (7.9)			
	2013	5 (13.2)			
	2014	6 (15.8)			
	2015	1 (2.6)			
	2016	3 (7.9)			
Participants	Nurse	32 (84.2)			
	Patient	3 (7.9)			
	Lay person, adult	3 (7.9)			
Method of data collection	Interview	27 (71.1)			
	Interview+participant observation	3 (7.9)			
	Interview+journaling	1 (2.6)			
	Interview+field note	1 (2.6)			
	Interview+historical document	1 (2.6)			
	Interview+historical document+picture+diary	1 (2.6)			
	Individual interview+focus group interview	2 (5.3)			
	Focus group interview	2 (5.3)			
Period of data collection (month)			4.53	1	11

로 하였으며, 간호사군 중 특별히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 프리셉터, 기혼간호사, 외래간호사, 퇴직간호사, 남자간호사, 수간호사 등 업무 및 젠더의 특성에 따른 연구 주제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밖에 환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편수는 각각 3편(7.9%)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자료수집방법으로 포함한 논문이 선정되었지만 대다수인 29편(76.4%)의 논문이 개인면담이나 초점집단면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자료수집을 하였다. 또한 면담과 관찰을 하였다고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관찰하였는지 기술되지 않았거나 면담을 하면서 관찰한 내용에 불과한 것은 자료수집방법 중의 하나인 ‘관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수집기간은 평균 4.53개월(1~11개월 범위)이었다.

2. 연구팀과 반성

COREQ의 ‘연구팀과 반성’ 영역은 크게 연구자의 특성과 참여자와의 관계로 분류되어 있다(Table 2). 연구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은 ‘어떤 저자가 면담이나 초점집단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 연구가 31편(81.6%), 단독연구가 7편(18.4%)으로 공동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공동연구자 중 어떤 저자가 면담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논문은 9편(23.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9편 중 제1저자가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명료하게 기술된 논문은 1편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공동연구자 중 일부만이 참여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저자가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문항 2는 연구자의 자격(PhD, MD 등)에 대한 내용으로 9편(23.7%)이 기술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연구주제나 질적 연구방법에 필요한 자격으로 박사학위 과정생임을 밝히고 있었다. 문항 3은 연구자의 직업을 묻는 내용으로 6편(15.8%)이 기술되었다. 주로 간호관리자나 외래간호사 등 연구참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언급되고 있었으며, 한 논문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모집하였다’로 연구자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항 4는 연구자의 성별에 관

Table 2. Domain 1: 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N=38)

Items	Categories	n (%)
Personal characteristics	1. Interviewer/Facilitator	Single research 7 (18.4)
	Joint research	Stated 9 (29.0)
		Not stated 22 (71.0)
	2. Credentials	Stated 9 (23.7)
		Not stated 29 (76.3)
	3. Occupation	Stated 6 (15.8)
		Not stated 32 (84.2)
	4. Gender	Stated 0 (0.0)
	5. Experience and training	Stated 24 (63.2)
		Not stated 14 (36.8)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s	6. Relationship established	Stated 10 (26.3)
		Not stated 28 (73.7)
	7. Participant knowledge of the interviewer	Stated 38 (100.0)
	8. Interviewer characteristics	Stated 23 (60.5)
		Not stated 15 (39.5)

한 내용으로 어떤 논문에서도 기술되지 않았다. 문항 5는 “연구자는 어떤 경험이나 훈련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4편(63.2%)이 기술되었다.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6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연구 시작 전에 설정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0편(26.3%)이 기술되었다. 사전에 참여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면대면, 메일, 전화로 관계를 형성해 왔다. 문항 7은 ‘참여자가 연구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100%) 모두 기술되었다. 즉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문항 8은 ‘면담자 혹은 진행자에 대해 어떤 특성이 보고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3편(60.5%)이 기술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주제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면담 시 개입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연구자가 주제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메모하여 상호비교하고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에 관한 것이었다.

3. 연구설계

COREQ의 ‘연구설계’ 영역은 이론적 틀,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환경 및 자료수집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Table 3). 이론적

틀에 대해서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9는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적 방향으로 진술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편을 제외한 37편(97.4%)이 기술되었다. 즉 현상학은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기술하기 위해,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하였다고 방법론적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적 연구 유형을 보면, 현상학이 15편(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상학자 중 Colaizzi와 Giorgi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근거이론이 11편(28.9%)이었고 모두 Strauss와 Corbin 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화기술지는 1995년과 1996년인 초기에 각각 1편씩 제시된 이후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해서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0은 ‘어떻게 표본을 선출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7편(97.4%)이 기술되었다. 편의적인 표본, 목적적인 표본, 눈덩이식 표본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8편(21.0%)은 편의-목적적, 목적적-눈덩이식 표본과 같이 2개 이상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은 표본을 어떻게 선출하였는지 표본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가 유추할 수는 있었지만 연구자가 어떤 표본인지 직접적으로 명명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문항 11은 ‘어떻게 참여자에게 접근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9편(76.3%)이 기술되었다. 이 중 면대면이 25편(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일이 2편(6.9%) 전화가 2편(6.9%)이었다. 문항 12는 표본크기에 관한 내용으로 38편(100%)이 모두 기술되었다. 표본크기는 평균 12.24명

Table 3. Domain 2: Study Design

(N=38)

Items	Categories	n (%)	M±SD	Min	Max
Theoretical framework	9.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theory	Phenomenology	15 (39.4)		
		Grounded theory	11 (28.9)		
		Ethnography	2 (5.3)		
		Focus group interview	3 (7.9)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2 (5.3)		
		Oral history study	2 (5.3)		
		Content analysis	3 (7.9)		
Participant	10. Sampling	Purposive	6 (15.8)		
		Convenience	21 (55.3)		
		Snowballing	2 (5.3)		
		Others (Two or more)	8 (21.0)		
		Not stated	1 (2.6)		
	11. Method of approach	Face-to-face	25 (86.2)		
		Mail	2 (6.9)		
		Phone	2 (6.9)		
	12. Sample size	Stated	24 (100.0)	12.24±5.82	5 36
	13. Non-participation	Stated	4 (10.5)		
		Not stated	34 (89.5)		
Setting	14. Setting for data collection	Stated	33 (86.8)		
		Not stated	5 (13.2)		
	15. Presence of non-participants	Stated	5 (13.2)		
		Not stated	33 (86.8)		
	16. Description of sample	Stated	38 (100.0)		
Data collection	17. Interview guide	Question with guide	9 (23.7)		
		Question without guide	25 (65.8)		
		Not stated	4 (10.5)		
	18. Repeat interviews	Stated	29 (76.3)		
		Not stated	9 (23.7)		
	19. Audio / visual recording	Stated	38 (100.0)		
	20. Field notes	Stated	21 (55.3)		
		Not stated	17 (44.7)		
	21. Duration	Stated	35 (92.1)		
		No stated	3 (7.9)		
	22. Data saturation	Stated	28 (73.7)		
		Not stated	10 (27.3)		
	23. Transcripts returned	Stated	16 (42.1)		
		Not stated	22 (57.9)		

이었고 최소 5명부터 최고 36명의 범위를 나타냈다. 현상학을 적용한 논문의 경우 표본 크기가 작았고 질적으로 내용분석을 다룬 경우 표본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3은 ‘연구 중 연구참여를 거절하거나 탈락한 연구참여자가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4편

(10.5%)이 기술되었다. 기술된 내용 중에는 부서이동이나 심정변화 등으로 인해 면담을 거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연구환경에 대해서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4는 자료수집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33편(86.8%)이 기술되었다. 자료수집 장소로 주로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였고 조

용하고, 편안함을 강조하는 환경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다. 문항 15는 ‘연구자나 참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5편(13.2%)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참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기술하지 않은 대부분의 연구는 밀폐된 공간, 독립된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어 참여자 이외의 다른 참여자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병실이나 카페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면담을 하면서 조용한 장소라고 표현하는 모순성을 나타냈다. 문항 16은 ‘표본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100%)이 모두 기술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나 기술적인 설명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7은 ‘연구자가 제공하는 질문, 지시, 지침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 질문과 이에 대한 가이드를 모두 제시한 논문은 9편(23.7%), 질문은 있지만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25편(65.8%), 질문과 가이드가 모두 없는 논문은 4편(10.5%)이었

다. 면담 질문에 대한 가이드로는 선행문헌, 연구자의 경험, 예비연구, 반영일지 등이 제시되었다. 문항 18은 반복 면담의 유무와 횟수에 대한 내용으로 29편(76.3%)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은 면담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면담 횟수에 대한 기술 시 참여자당 ‘1~2회’, ‘2~3회’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일 논문에서는 ‘참여자 1, 2, 5는 3회, 참여자 3은 4회, 참여자 4는 2회’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문항 19는 ‘자료수집을 위해 녹음 혹은 녹화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100%)이 모두 녹음으로 기술되었다. 문항 20은 ‘면담 중이나 후에 현장노트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1편(55.3%)이 기술되었다. 현장노트에 대한 기록으로는 주로 면담 중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태도나 반응, 참여자로부터 받은 느낌 등이었다. 문항 21은 ‘면담이나 초점집단의 기간은 얼마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35편(92.1%)이 기술되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면담에 대한 평균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 및 최고의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60~90분의 범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2는 ‘포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8편(73.7%)이 기술되었다. 포화에 대한 설명으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유사한 자료가 반복 나타날 때까지’, ‘공통된 의미 진술에서 차이점 없을 때까지’ 등으로 제시되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포화에 대한 설명 없이 ‘포화’라는 문장만 제시되어 있었다. 문항 23은 ‘전사물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을 위해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6편(42.1%)이 기술되었다.

Table 4. Domain 3: Analysis and Findings

(N=38)

Items	Categories	n (%)
Data analysis	24. Number of data coders	Stated Not stated
		19 (50.0) 19 (50.0)
	25. Description of the coding tree	Stated Not stated
		36 (94.7) 2 (5.3)
	26. Derivation of themes	Derived from the data
		38 (100.0)
Reporting	27. Software use	Not used
		38 (100.0)
	28. Participant checking	Stated Not stated
		18 (47.4) 20 (52.6)
	29. Quotations presented	Stated Not stated
		35 (92.1) 3 (7.9)
	30. Data and findings consistent	Consistent
		38 (100.0)
	31. Clarity of minor themes	Clear Not clear
		36 (94.7) 2 (5.3)
	32. Clarity of minor themes	Clear Not clear
		26 (68.4) 12 (31.6)

4. 자료분석과 결과

COREQ의 ‘자료분석과 결과’ 영역은 자료분석과 연구 보고로 분류되어 있다(Table 4). 먼저 자료분석과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24는 ‘몇 명이 자료 코딩을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 중 19편(50.0%)이 기술되었다. 특히 최근 논문일수록 연구자들 간의 자료분석이나 동료, 간호학 교수, 질적 연구 전문가들과의 자료분석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문항 25는 ‘연구자가 코딩 체계를 기술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제외한 36편(94.7%)이 학자들의 기준을 따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문항 26은 ‘주제가 자료에서 도출되었는지, 미리 정해진 틀에 따랐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100.0%) 모두 자료에서 주제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 27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논문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았다. 문항 28은 ‘참여자들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8편(47.4%)이 기술되었으며,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참여자와의 피드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명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 보고와 관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29는 ‘주제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용문이 있는가? 각각의 인용문이 확인(예, 연구참여자 번호)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5편(92.1%)이 기술되었으며, 대부분의 논문이 인용문과 연구참여자 번호가 함께 제시되었다. 문항 30은 ‘제시된 자료와 연구결과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38편(100.0%)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1은 ‘결과에서 주요 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편을 제외한 37편(97.4%)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다. 문항 32는 ‘다양한 사례나 하위주제에 대한 서술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6편(68.4%)이 하위주제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12편(31.6%)은 하위주제가 없거나 하위주제에 대한 기술 없이 인용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2000년도 이전의 논문에서 하위 주제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보고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침으로 COREQ를 이용하여 간호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행정학회지의 연도별 편수를 보면 전체 877편의 논문 중 질적 연구가 44편(5.0%)이었으며, 이 중 면담을 적용한 질적

연구는 38편(4.3%)으로 매년 평균 1.73편의 보고를 나타냈다. 이러한 편수의 분포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 연구의 출판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거나 명백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아 질적 연구의 양적인 성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외에서 4가지 간호 저널을 대상으로 25년(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동안 출판된 질적 연구 저널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19]에 의하면, 질적 연구가 1985년에 3%(65편), 2010년에 21%(97편)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상위 10위권의 간호 저널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11년에 출판된 질적 연구가 2002년보다 2배로 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지 않았다[20]고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간호학 분야별 질적 연구 동향을 조사한 연구[15]에서 면담을 적용한 질적 연구는 6%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질적 연구의 편수가 1~3편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간호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숫자적인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간호학 내 질적 연구의 가치에 대한 수용이 크다는 것[19]을 의미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 출판 편수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Ball 등[21]은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출판된 대부분의 질적 연구 논문이 방법론적인 참고문헌에 인용되지 못하여 피인용지수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방법론적인 용어(주제분석, 지속적인 비교기술 등)들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환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고[20]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자아성찰하고 의사결정을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므로[20,22] 질적 연구 논문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38편의 질적 연구 논문의 자료수집기간이 평균 4.53개월(1~11개월 범위)이었다. 비록 양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자료수집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한 논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었지만 질적 연구에서의 시간적인 소요로 인한 부담감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대상은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간호사군은 간호행정 분야의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등을 다루는 대표적인 주체로서 이들의 특성이 세분화하여 표집되었으므로 전공 학술지 규정에 잘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COREQ의 3가지 영역 중 연구자의 특성과 참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팀과 연구자의 반성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연구자의 반성(reflexivity) 영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12,23] 추후 질적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 영역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독자를 위해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 자격, 직업, 젠더, 경험과 훈련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유는 독자에게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자의 관찰과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정할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빙성(credibility)을 높이기 때문이다[24].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밝힌 연구가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O'Brien 등[11]의 연구에서 공동연구자들의 특성에 대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우리 연구 팀은 질적 방법에서 공식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두 명의 박사학위 연구자와 한 명의 의사로 구성되었고, 두 명의 의사는 경험이 있지만 질적 방법에 있어서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p. 1246)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젠더와 관련하여 기술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지만 Simpson [25]은 젠더가 자료의 질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젠더가 다를 때 연구자는 민감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과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부부생활에 대한 경험을 다룬 연구[26]에서 여성 연구자가 남성 참여자와 면담할 때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젠더 차이를 의식하고 면담 전에 음식을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 면담자가 남성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한 경우가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면담자는 남성간호사가 답변을 꺼리거나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닌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와 명백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참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7]. 본 연구에서 논문의 26.3%가 연구 시작 전에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주로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 참여자와 면대면 사전 접촉을 하였고 사전에 참여자를 이미 알고 있거나 선행연구를 통해 면식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참여한다는 참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여자도 연구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뿐 아니라 연구수행 목적과 연구 준비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주제나 참여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가정, 선입견으로부터의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면담으로부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연구자로서 개입을 피하고, 참여자와 거리를 유지하였으며,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나 편견 등을 메모하고 자료분석 시 상호대조하며 활용하였다. COREQ의 ‘연구팀과 반성’ 영역은 SROR의 가이드

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참여자에 대한 접근, 연구자 특성, 역할, 맥락 등의 영역과 유사하다. O'Brien 등[11]도 이러한 영역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결정을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런 기준이 야말로 양적 연구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질적 연구에서만 강조될 수 있는 특성인 것이다.

COREQ의 3가지 영역 중 연구설계 영역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틀을 잘 따르고 있었지만 연구방법으로 현상학(39.4%)과 근거이론(28.9%) 설계가 68.3%를 차지해 편중된 성향을 나타냈다. 간호행정학회지 내 질적 연구의 양적, 질적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편수의 증가와 아울러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근거이론(15%)과 현상학(15%), 문화기술지(20%) 설계 유형이 전체 질적 연구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Yarcheski 등[19]은 나머지 50%는 이 3가지 연구방법을 제외한 다른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다양성 측면에서 발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의 3가지 연구방법은 국외에서는 가장 공통적인 연구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간호행정학회지에서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995년과 1996년 초반에만 보고된 이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의 기본간호학회지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없었으며[14,15,17], 성인간호학회지에서는 91편의 논문 중 문화기술지 연구는 10편에 해당하여[16]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기술지 연구는 공유된 특성을 가진 간호단위문화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므로 추후 간호행정 분야에서 적용할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적인 표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표본 수가 적은 대신 연구의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목적적인 표본 이용이 선호되고 있다. 목적적인 표본은 참여자의 특별한 특성을 공유하고,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잠재성을 가진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24]. 참여자 선정 시 편의적인 표본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목적적인 표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표집을 선택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락한 상황도 제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엄격한 시도와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유는 지지가 되지 않은 진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진술되어야 한다[10]. 자료수집 시 본 연구에서는 면담만 단독으로 이용한 경우가 76.3%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18]. 또한 같은 주제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단순히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더 강한 설명을 부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23]. 질적 연구에서는 면담 외에 참여관찰, 문서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장노트를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55.3%를 차지하였고, 현장노트는 질적 연구의 자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노트를 자료수집방법으로 제시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교육 관련 학회지의 질적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현장노트를 활용했음을 밝힌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여[28] 같은 맥락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논문의 76.4%가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면대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특히 추가 면담은 이론적 포화상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판단되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추가 면담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아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어느 정도의 횟수와 반복 면담을 해야 자료가 포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COREQ의 3가지 영역 중 마지막인 자료분석과 결과에 대한 영역으로 먼저 자료분석은 본 연구에서 50%가 기술되어 있었으며, 공동연구자와 동료, 질적 연구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분석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Denzin [29]이 명시한 조사자 트라이앵글레이션(analyst triangul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견해를 이용함으로써 결과 해석에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결과에 대한 영역에서 참여자로부터의 인용은 본 연구에서 92.1%가 기술되어 있었고 참여자 번호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참여자 번호를 보면 일부 참여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COREQ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인용을 해야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진실성을 부가하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부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17]. 연구의 결과 영역은 논문의 채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간호행정학회지에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간 게재불가를 받은 논

문 76편 중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8편을 중심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과' 영역의 '찾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가?'에 대한 문항이었다[6]. 본 연구 논문의 94.7%가 주요 주제가 명료하게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한국과학재단 등재지 학술지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요건을 갖춘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하위주제가 명료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논문이 31.6%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하위주제에 대한 기술 없이 인용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의 동향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COREQ의 3가지 영역 중 '연구팀과 반성'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독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 보완해야 할 영역이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독자에게 투명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투명성이 있다는 것은 연구자가 문화적, 이론적으로 참여자와 자신의 목소리를 확인해야 함[30]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방법론적인 약점이나 문제점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되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강의하는 교육자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강조해야 하고 질적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문을 분석할 때 분석 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을 명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술됨'과 '기술되지 않음'으로 체크하였지만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하는 것에는 논문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포화를 설명할 때 포화에 대한 설명 없이 '포화'라는 용어만 기술하여도 본 연구에서는 기술되었다고 제시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질적 연구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질적 연구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행정학회지의 질적 연구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다양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진행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정보뿐 아니라 연구자

의 주관적 견해가 연구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결론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포착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 동안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을 Tong 등[10]의 COREQ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32개의 문항 중 과반수 이상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보면, 제1영역인 '연구팀과 반성'에서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나 자질, 개인에 대한 정보,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 과정, 면담자로서의 특성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독자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연구자가 관찰하고 해석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영역인 '연구설계'에서는 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면담 거부 및 탈락, 면담 시의 다른 사람의 존재 등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독자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면담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과 참여자의 특정한 반응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 확인은 면담 자료인 전사물과 제3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독자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자료로부터 도출된 연구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REQ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층면담이나 초점집단면담을 이용하지 않은 6개의 질적 연구가 제외됨으로써 모든 질적 연구방법을 포괄하지 못한 COREQ의 제한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Koh MS, Ha NS. Review of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and its research tren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1;7: 561-569.
- Kim JK, Jung MS, Jang KS, Kim JY, Lee HJ, Kim EK, et al.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 (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517-626. <https://doi.org/10.1111/jkana.2010.16.4.617>
- Jang KS, Kim BN, Kim YM, Kim JS, Jeong SH.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 (2010-201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5):679-688. <https://doi.org/10.1111/jkana.2013.19.5.679>
- Lee TW, Park KO, Seomun GA, Kim M, Hwang J, Yu S, et al.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 (2013-2015): The application of text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1):101-110. <https://doi.org/10.1111/jkana.2017.23.1.101>
- Seomun KA, Koh MS, Kim IA. Classification of keywords of the papers fro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2-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7;13:118-122.
- Jeong SH, Lee T, Yu S, Seo M. Analysis of manuscripts rejected b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2015 Ju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5):561-574. <https://doi.org/10.1111/jkana.2015.21.5.561>
- Denzin NK, Lincoln Y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5.
- Park MH, Kang SJ. Analysis of the tren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in Korea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2012;55(2): 205-226.
- Strauss A,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998.
- Tong A, Sainsbury P, Craig J.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A 32-item checklist for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7;19(6):349-357. <https://doi.org/10.1093/intqhc/mzm042>
- O'Brien BC, Harris IB, Beckman TJ, Reed DA, Cook DA. Standards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A synthesis of recommendations. *Academic Medicine*. 2014;89(9):1245-1251.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0388>
- Blaschke S. The role of nature in cancer patients' lives: A systematic review and qualitative meta-synthesis. *BMC Cancer*. 2017;17:370. <https://doi.org/10.1186/s12885-017-3366-6>
- Luker J, Lynch E, Bemhardsson S, Bennett L, Bemhardt J. Stroke survivors' experiences of physical rehabilitation: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15;96(9):1698-1708. e1610. <https://doi.org/10.1016/j.apmr.2015.03.017>
- Lee EJ, Song JE, Kim M, Kim S, Jun EM, Ahn S, et al. Analysis on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

- nal of Women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4):321-332.
<https://doi.org/10.4069/kjwhn.2012.18.4.321>
15. Park HS, Kim YM.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5; 22(4):442-451. <https://doi.org/10.7739/jkafn.2015.22.4.442>
 16. Kim YK, Hwang SY, Shin SJ.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89-2011).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1;23(6):633-641.
 17. Nam KA.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4;23(4):311-321.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4.311>
 18. Creswell J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1998.
 19. Yarcheski A, Mahon NE, Yarcheski TJ. A descriptive study of research published in scientific nursing journals from 1985 t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2;49(9): 1112-1121.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03.004>
 20. Gagliardi AR, Umoquit M, Webster F, Dobrow M. Qualitative research publication rates in top-ranked nursing journals: 2002-2011. Nursing Research. 2014;63(3):221-227.
<https://doi.org/10.1097/NNR.0000000000000022>
 21. Ball E, McLoughlin M, Darvill A. Plethora or paucity: A systematic search and bibliometric study of the application and design of qualitative methods in nursing research 2008-2010. Nurse Education Today. 2011;31(3):299-303.
<https://doi.org/10.1016/j.nedt.2010.12.002>
 22. Shaw RL, Booth A, Sutton AJ, Miller T, Smith JA, Young B, et al. Finding qualitative research: An evaluation of search strategie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04;4:5.
<https://doi.org/10.1186/1471-2288-4-5>
 23. Barusch A, Gringeri C, George M. Rigor in qualitative social work research: A review of strategies used in published articles. Social Work Research. 2011;35(1):11-19.
<https://doi.org/10.1093/swr/35.1.11>
 24. Giacomini MK, Cook DJ. Users' guides to the medical literature XXIII.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A.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valid?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JAMA. 2000;284(3):357-362.
<https://doi.org/10.1001/jama.284.3.357>
 25. Simpson R. Masculinity at work: The experiences of men in female dominated occup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04;18:349-368.
<https://doi.org/10.1177/09500172004042773>
 26. Kim M, Park GS, Windsor C. Marital power process of Korean men married to foreign women: A qualitative study.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013;15:73-78.
<https://doi.org/10.1111/j.1442-2018.2012.00738.x>
 27. Elder NC, William L. Reading and evaluating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1995;41:279-285.
 28. Kim YS. Patterns and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2011;50(4): 1-16.
 29. Denzin NK.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1978.
 30. Pearson A, Jordan Z, Lockwood C, Aromataris E. Notions of quality and standards for qualitative research repor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15;21(5):670-676.
<https://doi.org/10.1111/ijn.12331>